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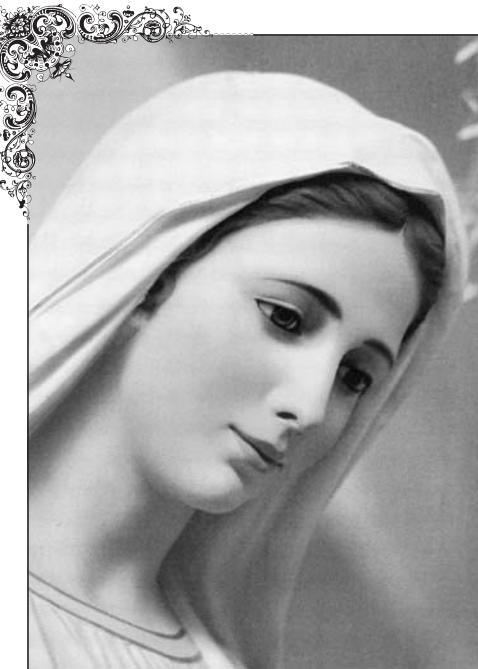
# 메주고리예



Medjugorje

October, 2008 제46호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시 한 번 평화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기를 바란다.

기쁘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느님께서 나의 현존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시는 크신 은총, 너희가 바로 그 은총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거부하지 말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며,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평화와 사랑의 은총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나는 어머니로서 너희를 축복한다.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어서 고맙다." "

2008년 9월 25일 성모님의 메시지

## 태아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 희망!

### - 낙태반대를 위한 40일 릴레이 기도 -

'생명을 위한 40일' 낙태반대 운동이 24일부터 40일간 미국 전역에서 시작된다. 2004년 텍사스에서 시작된 '생명을 위한 40일' 운동은 낙태 수술을 시행하는 병원 앞에서 이 운동에 동참하는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40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펼치는 것. 신자들은 병원 앞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침묵 기도를 이어간다. 이 운동은 많은 이들의 호응 속에 지난해엔 미국 전역으로 퍼져 33개주 89개 도시가 참여했고 올해에는 미국 45개주와 함께 캐나다와 푸에르토리코 일부 지역이 참여한다.

이 운동을 처음 시작한 카니씨는 "낙태를 한 엄마들을 용서하고 태아에게는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 희망이 될 것"이라며 "기도만이 이 비극을 끝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 운동에 참여한 사무엘아퀼라(파르고교구) 주교는 "평화적으로 기도를 이어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다"며 "이 운동이 인간 존엄성을 상기시키고 낙태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미국)=CNS】 평화신문 2008. 09. 07발행 [985호]



## 성모님과 함께 드리는 기도

-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박 창득 몬시뇰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세요.
- 모든 사제와 수도자들의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평화의 모후 선교회와 지도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성모님, 동생이 이번 순례길에 많은 은총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 성모님, 사랑하는 ooo의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소서.
- 처가 부모님의 건강 회복과 가톨릭 입교를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 냉담증인 시몬의 회개와 장애자 아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소서.
- 10월 순례자들과 지도 신부님에게 많은 은총을 주시기를 청합니다.
- 어머니마을과 봉사자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원들을 봉헌합니다.
- 김분도, 모니카님의 성가정을 보살펴 주시는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 평화의 모후 기도회와 회원들의 가정을 봉헌하오니 늘 보살펴 주세요.
- 세 아들을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제되도록 봉헌합니다.
- 척추 목 수술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고 기도해주세요.
- 파산하고 타국에서 힘겹게 살고 계시는 저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냉담증인 남편이 회개하고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교회를 떠난 청년들과 장애인들을 봉헌하오니 보살펴주세요.
- 성모님, 요셉의 가정과 새로 시작한 사업체를 봉헌하오니 축복과 은총을 내려주소서.
- 돌아가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영원한 안식을 주세요.
-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느님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오빠들과 언니, 동생가정을 봉헌하오니 보살펴 주시어 한 믿음안에 살게 하소서.
- 돌아가신 부모님과 두 대모님, Kelly 신부님의 천국영광을 위하여
- SAT를 보는 크리스티나에게 지혜를 주시어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기도드립니다.
- 성모님, 저희 가정에 평화를 주시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 가도록 도와주세요.
- 모든 연옥영혼들과 낙태아들의 영혼이 주님안에 평온하기를 기도합니다.
- 예수 성심 마리아 성심이여! 저희 가정에 자비를 베풀소서.
- 가슴통증으로 고통 받는 저의 치유와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언니와 어머니의 영혼이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천국에 머물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성령이여! 저의 이기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 수험생 OO과OO를 봉헌하오니 수도성소로 이끄시어 주님의 도구로 써주소서.
- 남편에게 적합한 직장을 주시고 주님의 평화안에서 이 시련의 시기를 견디도록 도와 주소서.
- 수능 시험생 유스티노에게 하느님의 뜻에 맞는 결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 하느님,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보시어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해주세요.
- 가족 모두가 함께 하느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모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 메주고리에 소식지를 통해 큰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강 루비나, 김분도를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홍 바오로 가정에 필요한 은총과 성화, 연옥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장 역류병 위한 치유와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 치유 와 용서, 사랑, 평화, 묵주기도와 고백성사의 은혜를 주세요.

-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신부님께서 지면상 이곳에 올리지 못한 모든 기도 지향들도 함께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심신 봉헌 및 성시간에도 모든 기도 지향들을 위하여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 성모님의 매일 발현을 보는 목격자 비스카에게 기도지향들을 전달하여 성모님의 축복을 청했습니다.
- 10월 메주고리에 순례때 요조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일치시켜줍니다. -제 19 차 국제 청년 기도 페스티벌 개막 미사 강론-

페타르 블라식 신부님의 개막인사 / 메주고리예 본당 주임

"제19차 메주고리예 국제 청년 기도 페스티벌에 오신 60여개국의 젊은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들! 정말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불림과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우연히 온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목소리와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에 머무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간단하게 "와서 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그 말씀은 제자들의 온 삶을 바꾸었으며, 예수님의 영원한 친구가 되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 내면의 영을 보았고, 그 영이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 없이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예는 바로 이러한 장소입니다. 메주고리예에 왔던 사람들은 늘 이곳의 평화를 그리워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새로운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호주 시드니에서 교황 성하께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만끽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젊은이들!"이라고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성모님이 발현하셨던 27년동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모님께서는 매일 매일 사랑과 화합으로 우리들을 이끄시어 예수님의 제대 앞으로 모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모후이신 그분은 이렇게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돈많은 은행들이나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의 핵심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그것이 각 나라의 영적 중심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일치시켜줍니다. 영원한 교회, 승리의 교회는 하늘과 사람들이 하나가 되도록 일치시켜줍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그 이상의 것들이 채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메주고리예에 잘 오셨습니다. 특히, 젊은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누군가로부터 상품화된 메주고리예를 전해들었다거나 어떤 선전이나 광고를 보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메주고리예는 여러분의 집이고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목욕을 하고 몸과 마음이 깨끗히 정화될 것을 믿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곳을 여러분의 집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를 생각합시다. 우리 모두 성체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께 흠숭드리고 함께 찬송하면서 기도안에서, 평화안에서 일치합시다. 메주고리예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변화된 우리들의 삶이 이

웃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또 시드니에서 있었던 젊은이 축제와 메주고리예의 젊은이 축제가 살아 계신 하느님을 증거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이 되도록 합시다. 성모님이 27년 동안 발현하고 계시는 거룩한 땅, 평화의 땅인 이 작은 마을에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한 축복과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신 평화의 모후께 개방합시다.

이반 세사르 신부님의 개막미사 강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존경하는 본당 신부님, 형제 자매 여러분, 동료사제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기에 앞서 이 미사가 제19차 국제 청년 페스티발 개막미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9차 메주고리예 청년 페스티발은 또 시드니에서 열렸던 청년 대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대륙에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자리를 찾아와 주신 것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 주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맙습니다. 또 전세계 각 지역에서 이곳을 찾아오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신 젊은이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이 페스티발 기간중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거룩하신 평화의 모후, 동정 마리아을 향해서 개방하도록 합시다. 젊은 처녀, 동정녀이신 나자렛의 처녀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라고 대답 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도와주시도록 청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페스티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성모님의 모성이 우리들과 함께 있음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그분은 이미 구약에서도 평화의 왕이시고 영원한 아버지로 소개되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알고

계신 분, 그 진정한 기쁨을 당신의 친구들에게 약속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너희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완전해 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 메주고리예에서 열리는 페스티발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느님을 체험하고자 하는 페스티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안에 들어오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 각자를 만나고 싶어하십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는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올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모임을 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저녁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해서, 당신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그분께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봉헌하고 용서를 청하면서 정화되는 순간을 지니도록 합시다.

고스빠 성모님께서는 지난 메시지에서 '하느님 안에서 쉬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흠숭하는 이 시간을 시작하며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도 당신안에서 쉬겠습니다. 이제 제 마음을 열고 은총과 기쁨과 강복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저는 당신 것입니다. 그런 저에게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아멘!" M



##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신경남 스테파노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2008년 9월 25일 성모님 메시지 묵상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시 한 번 평화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기를 바란다.

이번 달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는 '다시 한 번 평화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시금 평화로 초대하십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고, 그것을 살기로 결심하며 실행에 옮길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느님께서 평화의 근원이시기에, 평화를 선택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하느님을 우리 삶의 첫 자리에 모시고,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고, 평화는 우리를 찾아옵니다. '다시 한 번 평화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기를 바란다.'고 하신 성모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며 우셨던 장면을 소개하는 루카 복음 19장 41-44절을 함

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도성을 보고 우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네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라는 말씀에서 드러나듯이, 회개였습니다. 마음과 삶, 그리고 존재 전체가 하느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만을 섬기는 행위인 회개,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회개, 인간적인 수단이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에 온전히 삶을 내맡길 줄 하는 회개,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보여주셨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

우리는 모든 실패를 성공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게 평화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 도성은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A.D. 70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당신의 메신저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선택하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화를 빌어주라."고 말씀하셨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쁘게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하느님께서 나의 현존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시는 크신 은총, 너희가 바로 그 은총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평화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살아 존재하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평화의 모후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하느님 평화의 사도로 부르십니다. 평화의 모후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평화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모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평화의 근원이신 당신께로 초대하십니다. 성모님의 발현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깊은지 보여주는 은총의 표지, 아니 은총 자체입니다.

성모님 메시지대로 지금 우리는 성모님의 발현이 계속되고 있는 은총의 시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인 것처럼 1981년 메주고리예에서 시작된 성모님의 발현도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발현이 될 메주고리예 성모님 발현이 언제 끝날지 전혀 알려진 바 없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보아 그 때가 그리 멀지 않았음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은총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매일 성모님의 메시지를 매일 읽고 묵상하고 실천에 옮기며 우리의 모범적인 삶으로 그 메시지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에게 주어지는 은총을 거부하지

말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며,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평화와 사랑의 은총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예수님,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성모님을 죄와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저희에게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성모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성모님, 당신이 저희와 함께 머무르시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당신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하오니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당신의 현존과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M**





## 열쇠와 사슬을 든 천사

479. 92. 10. 7. 블루멘펠트(독일)  
로사리오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너는 오늘, 내 '티없는 성심'에 봉헌한 사제들과 평신도들의 '다락방'을 열려고, 이곳 독일의 내 '운동' 본부에 와 있다. 너희는 나를 '거룩한 묵주의 동정 마리아'로 공경한다. 과연 '묵주기도'는 나의 기도이다. 이 기도를 청하려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기도 했으니, 그것은 이 기도가 현재의 대전투기에 너희가 꼭 사용해야 할 무기일 뿐더러 내 확실한 승리의 표지인 까닭이다. 나의 승리는, '사탄'이 그의 강력한 군대, 지옥의 모든 악령들로 이루어진 군대와 함께 암흑과 죽음의 제 나라에 간힘으로써 다시는 해를 끼치려고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락'의 열쇠와 사슬을 손에 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묵시 20:1), 오래된 뱀으로서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커다란 용(\* 묵시 12:9 참조)을 그의 모든 추종자들과 함께 사슬로 묶어야 하는 것이다. 천사란 특별한 임무를 띠고 하느님께로부터 파견되는 '영'이다. 그런데 나는 '천사들의 여왕'이다. 사탄 정복이라는 가장 중대한 사명 완수를 위해 주님의 파견을 받는 것이야말로, 바로 나에 대한 주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는 사명이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영원으로부터 뱀의 원수로서 그와 싸워 결국에는 그의 머리를 짓밟을 '여인'으로 예고되었다: "나는 너를 여인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

리어 머리를 밟히리라."(\* 창세 3:15)

나의 후손은 그리스도이시니, '구원 사업'을 통해 사탄의 종살이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신 그분 안에서 나의 완전한 승리가 성취된다. 그러기에 '지옥' 문을 여닫는 열쇠가 내게 맡겨진 것이다. 열쇠란 자기 소유지의 주인이며 지배자인 자에게 속한 권한의 표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의 열쇠를 지니신 분은 오로지 '육화하신 말씀'(\* 요한 1:14) 한 분뿐이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요한 1:3),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 전체, 곧 하늘과 땅과 지옥의 '주재자'이시며 '왕'이신 것이다.(\* 필립 2:10 참조) 그 러므로 지옥의 열쇠도 내 성자 예수께서 훌로 가지고 계신다. 그분 자신이 바로, 당신이 여시면 달을 자가 없고 달으시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 묵시 3:7; 이사 22:22)이시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의 신적 권능을 표상하는 이 열쇠를 내 손에 맡기신다. 그분의 '어머니'요, 너희와 내 성자 사이의 중개자인 내게, 사탄과 그의 악하고 강한 군대를 쳐부술 임무가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열쇠로 내가 지옥문을 여닫을 수 있는 것이다.

커다란 '용'을 묶어야 할 사슬은, 나와 함께, 나를 통해서 바치는 기도로 만들어진다. 그 기도가 다름아닌 '거룩한 묵주기도'이다. 사실, 사슬은 첫째로 그것에 묶여 있는 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 둘째로 그를 가두는 역할, 마침

내는 그의 모든 활동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거룩한 묵주의 사슬은 무엇보다도 우선, 내 '원수'의 활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너희가 나와 함께 바치는 모든 묵주기도는 '악마'의 활동을 억제하고, 그의 간악한 영향으로부터 영혼들을 빼내고, 수많은 내 자녀들의 생활 안에 더욱 활기차게 선을 증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거룩한 묵주의 사슬은 또한 사탄을 가두는 효과, 곧, 그의 활동을 무력하게 하여 그 악마적 권세의 힘을 갈수록 감소 · 약화시키는 효과를 낸다.

그러기에 묵주기도를 정성껏 바칠 때마다 악의 세력에 강력한 타격을 가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그 기도는 무너져가는 그의 지배력의 일부를 나타내는 셈이 된다. 거룩한 묵주의 사슬은 마침내 사탄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의 큰 권세가 꺾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악령들은 불과 유황 구덩이로 던져지고, 내가 '그리스도 권능'의 열쇠로 그 문을 잠글 것이니, 그들은 더 이상 영혼들을 해치려 세상에 나올 수 없게 될 것이다.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제 너희는 '태양을 입은 여인'(\* 묵시 12:1)인 나와 '커다란 용'(\* 묵시 12:9)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가 왜 너희더

러 거룩한 묵주기도와 내 말에 대한 묵상, 그리고 티없는 내 성심에 너희를 봉헌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다락방' 기도회를 곳곳에 확장하라고 당부하는지, 그 까닭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 다락방들로써 너희는 너희 '천상 엄마'에게 사탄을 뚫는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 그리하여 그의 머리를 밟기로 되어 있는, 즉, 그를 영원히 패배시켜 불과 유황의 지옥에 가두기로 되어 있는 나의 사명을 완수 할 수 있게 한다.

거룩한 묵주의 보잘것없고 약한 끈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어두운 지배자, 하느님과 그분의 충실한 종들의 원수를 나의 포로로 사로잡게 하는, 힘있는 사슬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고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힘에 의해 사탄의 교만이 다시 한 번 굴복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나는 나의 위대한 승리 – 너희에게 확실한 해방을 가져올 그 승리가 다가왔음을 선포하는 한편, 너희 가운데 내 모성적 현존의 위로를 선물하면서 너희를 축복한다.

이 메시지는 1973년 부터 1997년 까지 성모님께서 스테파노 곱비 신부님에게 내적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성모님께서 지금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 주 –

##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

성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중재 기도의 사명을 받은 빌현 목격자 비스카에게  
전달하여 성모님의 발현때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기도지향을 위하여  
선교회의 지도신부님께서 미사를 봉헌해드립니다.

보내 실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미국)**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610-366-9612 Fax 610-366-9614  
e-mail: qpmm.org@gmail.com

**평화의 모후 선교회(한국)**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031-29 한양빌딩 B 1  
Tel. 02-2281-3236 / Fax. 02-2281-3246  
e-mail: qpmmkr@gmail.com



## 그 수도복을 벗으시오!

사브리나 꼬비치  
남기옥 마르타 역

다. 그들은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유와 비판거리를 찾아 내야 했어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했으며 당위원회가 있는 치툴룩에 매일 호출해서 취조를 받았어요. '네디오'라는 사람은 취조를 받기 위해 병들고 마비된 아버지를 모시고 매일 치툴룩에 가면서 울곤 했습니다. 우체부, 포도농장에서 일하던 농부들도 모두 혹사당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지요. 그들은 사제인 제가 정치적인 강론을 했다고 몰아부친 후,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정치범으로 고발하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 동안에도 메주고리예는 기도와 단식, 참회의 장소, 영적인 설교와 교리교육을 듣고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기도의 장소… 그렇습니다, 메주고리예는 기도의 장소였어요! 로사리오기도, 환자들을 위한 치유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봉헌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위적으로 구성 된 것이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참으로 강하고 풍성한 영적 모임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공산 정부는 그런 종교 모임을 두려워해서 발현증인 아이들, 부모, 마을 주민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며 막으려고 했지만 불 가능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그들은 매 10미터마다 수색을 하고 순례자들까지도 괴롭혔습니다. 그 당시 메주고리예에 온다는 것은 정부에서 준 아파트를 빼앗기고 공무원자리를 박탈 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순례를 온 많은 사람들은 위대하고 용감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질문 : 체포당하실 때의 일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요조 신부 : 기억하고 말고요! 1981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 토요일이었습니다. 8월 14일 대축일 전야기도회를 준비했고 8월 15일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몰려와서 성당에 미처 다 들어오지 못할정도였습니다. 저는 밖에 있던 신자들을 위해서 음향 전문가와 함께 스플릿에 가려고 했습니다. 성당 주위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를 설치해서 성당 밖에서라도 함께 미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공산당원들과 경찰들은 성모승천대축일 전야기도회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저희는 성공적으로 기도회를 진행 했습니다.

질문 : 공산당들은 "40년 간의 광야생활..." 강론을 공산 치하의 40년을 빛댄 것이라고 한다죠?

요조 신부 : 제 강론 주제 중의 하나였던것은 사실입니

질문 : 신부님께서는 그런 용기에 힘입어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었군요?

## 내가 당신을 잡아 넣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꽤 오래됐죠!

**요조 신부** : 상호보완적이었지만 정말 용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용감해졌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성당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뜨로메디야 교차로를 통과해 들어온 사람, 150km가 넘는 스플릿에서 걸어서 온 사람, 이들은 모두 용감한 영웅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주고리예까지 올 동안 그들은 적어도 100 번 이상은 주민 중 검사를 받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해 들어오는 사람은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했고 항상 자동차정비 불량이란 딱지를 받고 엄청난 벌금을 물렸고 몇 시간동안 운전자를 괴롭혔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찾아 오는 사람들은 정말 용감했습니다!

**질문** : 경찰이 신부님을 찾아왔었지요…

**요조 신부** : 며칠 전부터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견진 성사를 위해 이루어지는 거리행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수 천대의 자동차들로 거리가 꽉 메워졌습니다. 감당못할 군중이 모였어요! 그런데다가 너무 많은 일로 즈렁꼬 신부님은 지치셔서 조금이라도 쉬시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나쉬 오그나쉬타' 우리집이라는 가톨릭 신문 편집장인 페르도 블라쉬치 신부님께서 기사 취재를 위해 주일 본당을 방문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8월 17일 월요일… 이른 아침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그 시간 저는 욕실에 있었습니다. 사제관에서 그날 밤을 지내신 블라쉬치 신부님께서는 "신부님, 사람들이 기다려요!"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욕 가운을 걸친채 나와보니 키가 큰 사람이 사제관으로 들어와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따라 오라는 거예요. 제방으로 들어가서 프란치스코회 수도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 수도복은 제 옷이며 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수도복을 벗으시오! 입을 수 없소!"라고 말했습니다. … 평복으로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층계쪽으로 나왔더니, 사제관 층계 밑에 바싹 갖다 대어 놓은 골프 자동차에 저를 밀어 넣었습니다. 자동차는 행렬을 하면서(앞에 두 대, 뒤에 한 대) 메주고리예 출구인 뜨로메디야 교차로까지 도달하더니 차에서 내리라고 명령하더군요. 무척 많은 경찰들과 군인들이 숲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말이지만, 제가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도망치려는 낌새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 즉시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짐차가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시오!"라고 하면서 골프 차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시로키 부리엑쪽으로 향하는 지금의 그 자리에는 주유소가 자리잡

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터였고 그 옆으로는 작은 공장이 있었던 자리에 짐차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작은 식품점이 자리하고 있어요. 저는 천천히 작은 짐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운전기사가 문을 열었고,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 달리는 동안 안에 있는 두 개의 자동차 타이어가 이리저리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밖을 내다보고 있을 때 타이어들이 저를 덮쳤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심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뾰수쉐 본당에 있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한 남자가 말했어요. "언제부터인가 내가 당신을 잡아 넣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꽤 오래됐죠!" 저는 할말이 없었어요. 입을 다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취조실에 들어와서 한 명씩 저에게 심문을 했고 저를 자극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제관에 있던 제 개인 소지품들을 모두 압수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정치단체와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아내서 가능한 한 최고형을 받게 할 목적으로 증거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헌법 133조는 최고형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선동죄, 증오선동, 혁명선동, 정부전복선동… 어떤 것이든지 저를 고발해줄 건수가 필요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보냈지만 그들은 저에게 최소한의 먹을 것 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읽을 책이라고는 단 한 권도 지닐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었지요. 메주고리예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 교도관이 제 독방문을 열면서 중얼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메주고리예 순례를 가셨습니다!" 그 때야 비로소 모든 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나중에 그 교도관은 저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M



## 성모님의 발현지와 메시지 (3)



'기적의 메달 성당' 내부 모습

1830년 7월 18일의 밤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 현대의 마리아 시대를 여신 날이다. 그것은 성모님께서 1531년 과달루페에서 발현하신 이래 약 300년이 지난 후였다. 1830년의 그 날 밤에 있었던 성모님의 발현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온 일련의 성모님의 발현들, 기적들 및 교회의 개입들의 시작이었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 "우리의 시대는 마리아의 시대라고 불리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위대한 징표 The Great Sign』 #6, p.11, 1967년 5월 13일).

### 성모님의 첫번째 발현

1830년의 그 밤은 축복받은 밤이었다.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는 파리의 르드박에 위치한 애덕의 수도회 본원에 있던 24세의 수련자에게 발현하심으로써 당신의 계획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셨다. 수도원 숙소의 침실에서 자고 있던 수련자 카타리나 라부레는 조용하게 자기를 부르는 수호 천사의 소리를 듣고 잠을 깼다. 눈부시게 빛나는 힌옷을 입고 있는 아름다운 수호 천사는 그녀에게 "성당으로 가라. 복되신 동정녀께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해주었다. 5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의 모습인 천사를 따라 성당으로 가면서

로버트 빌 신부 (Rev. Robert J. Billett, C.M.F.)

카타리나는 마치 성탄절 전야의 자정 미사를 드릴 때처럼 불들이 환하게 켜져 있음을 보고 놀랐다. 그녀가 제대 가까이 갔을 때, 수도회 지도 신부님의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때 그녀는 갑자기 비단 옷이 스치는 소리와 함께 지극히 아름다운 부인이 그녀를 향해 오시는 것을 보았다. 성모님께서는 아이보리 색갈의 아름다운 드레스와 푸른 망토를 걸치셨으며, 흰색의 베일이 머리를 덮고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다. 성모님께서는 지도 신부님께서 앉으시던 의자에 앉으셨다. 천사는 카타리나에게 말하였다. "이분은 복되신 동정녀이시다." 카타리나는 그녀의 양손을 성모님의 무릎 위에 놓고 성모님의 눈을 바라보았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딸아,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그분의 사명을 네가 맡기를 원하신다." 성모님께서는 이어서 카타리나가 그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련을 겪게 되겠지만,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주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인도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신뢰심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녀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후에 밝혀질 것이었다.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당신께서 카타리나가 소속되어 있는 성 빈체 시오가 설립한 남녀 수도회들을 사랑하시며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수



성 카타리나 라보레수녀와 성모님의 첫번째 발현 모습

도회의 규율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하며, 기도를 더 열심히 바치고 특히 묵주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며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프랑스와 교회가 겪게 될 재앙을 예언하시다**

성모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현 시대는 악하다. 프랑스에 슬픔이 닥칠 것이며, 왕좌가 전복되고 거리에는 피가 넘쳐 흐를 것이다. 십자가가 내던져지고 짓밟히게 되고 대주교는 그의 의복을 벗기울 것이다. 주님의 옆구리는 다시 찔릴 것이다. 전 세계가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동정녀께서는 매우 슬픈 얼굴로 이 말씀을 겨우 끝내셨다. 그러나, 어두운 프랑스의 앞날에 희망을 제시해 주시듯이, 제대 아래를 손으로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제대 아래로 오너라. 여기에서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성모님께서는 프랑스의 교회가 미래에 겪을 슬픔들과 재난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다른 수도회들과 성직자들도 희생자들이 나올 것이다. 파리의 대주교는 살해될 것이다. 전 세계가 슬픔에 잠길 것이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카타리나에게 이 사건들 중 일부는 곧 일어날 것이고, 나머지는 40년 후에 일어날 것이라고 알려 주셨다. 그리고 카타리나가 미래에 겪게 될 일들도 말씀해주시고 사라지셨다. 수호 천사는 카타리나를 다시 숙소로 데려다 주고 사라졌다. 그날 밤, 카타리나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고 있을 때 시계는 새벽 2시를 알리고 있었다.

얼마 후, 프랑스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신 성모님의 예언들은 정확하게 실현되었다. 성모님의 발현이 있었던 그 다음 주, 1830년 7월 27일에 파리에서 혁명이 일어나 찰스 10세 국왕이 폐위되었다. 폭도들은 성당을 모독하였고, 의도적으로 성상들을 파괴하고 십자고상들을 끌어내려 짓밟았다. 주교들과 많은 신부들은 감옥으로 보내졌으며 일부는 구타당하고, 살해되었다. 파리의 히야신트 드 젤랑 대주교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두 번이나 피신해야 했다.

1848년에 혁명이 또 일어났다. 루이 필립 왕이 폐위되고 유배되었으며 파리의 아프르 대주교는 폭도들에게 평화를 호소하다가 총에 맞아 쓰러졌다. 그 후 40년이 지난 1870년 9월에 또 다시 혁명이 일어나 루이 나폴레옹 3세 황제가 보불 전쟁에 패하여 폐위되었다. 6개월 후, 파리에서 있었던 새로운 혁명은 비록 2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성모님께서 예언하신 슬픔들과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승리의 성모 성당과 파리의 수 많은 성당들이 신앙의 의미를 부정하는 이들에 의하여 큰 시련을 겪었다. 심지어는 성직자들의 묘지들과 유해들까지도 수난을 당해야 하는 교회의 시련시기였다. 프랑스의 수 많은 수도회 및 본당의 신부들이 체포되었으며, 파리의 다르뵈 대주교를 포함해서 30명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약속하신대로, 빙첸시오 수도회는 비록 수녀들이 공포에 찬 순간들이 있었지만, 무사할 수 있었다.

###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1830년 11월 27일, 하느님께서 카타리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밝혀졌다. 그것은 지금 '기적의 메달'이라고 알려져 있는 무염시태(성모님의 원죄없이 잉태되심)의 메달을 만들어서 배부하는 사명이었다. 그 날은 대림 첫 주일 전의 토요일이었다. 수녀들은 여느 때처럼 기도드리기 위하여 오후 5시 30분에 성당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흰 드레스 위에 발까지 내려오는 긴 흰색 베일을 쓰고 계신 성모님께서 갑자기 카타리나에게 발현하셨다. 지구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시는 모습으로 발현하신 성모님은 두 손으로 금색 공을 들고 하느님께 봉헌하시며 하늘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리고 성모님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로 장식된 반지들로 부터 수없이 많은 빛들이 성모님이 계시는 발밑의 지구를 비추어 주었다. 그 빛은 너무나 강렬하여 성모님의 발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카타리나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마음의 음성으로 들었다. "네가 보는 이 공은 세계와 특히 프랑스를 뜻하며, 그 안의 모든 사람들을 뜻한

다. 이 빛줄기들은 은총을 청하는 이들에게 내려주는 은총들을 상징한다. 빛을 발하지 않고 있는 보석들은 사람들이 청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고 있는 은총들을 상징한다." 그 말씀과 함께 흰 드레스에 푸른 망토를 두르시고, 어깨까지 내려오는 흰색 베일을 쓰시고 1830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지구 위에서 계신 모습으로 한쪽 발로 뱀의 머리를 짓밟고 계신 성모님의 모습이 보였다. 두 팔과 손을 아래로 뻗치고 계신 성모님의 양손에서는 폭포와 같은 빛줄기들이 지구 위로 쏟아져 내려왔다. 그리고 성모님의 주위에 금색의 글자들로 구성된 타원형의 테두리가 생겼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기도문이었다. "오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여, 당신께 의지하는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이것은 앞으로 만들어 질 기적의 메달의 앞면이었다. 곧이어 타원형 테두리 후면의 모습이 보였다. 카타리나는 그 안에 있는 십자가를 보았다. 십자가 밑에는 막대기가 있고, 그 막대기에는 "M"자가 걸려 있다. 그 밑에는 예수 성심과 마리아의 성심과 두 성심 위에는 사랑의 불꽃이 있었다. 예수 성심은 가시관에 둘러싸여져 있으며, 마리아의 성심은 칼로 찔려져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주위에는 타원형의 테두리를 따라 열두 개의 별들이 보였다.

### "네가 본 것과 똑같은 메달을 만들어라 . . ."

카타리나 수녀는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다. "네가 본 것과 똑같은 메달을 만들어라. 그것을 지니는 모든 이들이 큰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이 메달은 목에 걸어야 한다. 신뢰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니는 사람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이다." 이 메달이 만들어지고 배포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카타리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성모님께서는 그 후에도 카타리나가 맡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기 위하여 1830년과 1831년에 6회 정도 발현하셨다. 카타리나는 이 일을 수행하면서 메달들이 만들어지는 일들과 세상의 시선에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



성모님의 두번째 발현 모습



움과 고통을 받아야 했다. 후에 '침묵의 성녀'로 불리우는 그녀는 1876년에 죽을 때 까지 46년 간 자신을 감추고 지냈다. 카타리나는 그녀의 영적 지도자인 장 마리 알라델 신부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자기가 본 발현들이나 자신이 받은 사명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1830년에 30세가 되는 알라델 신부에게 주어진 임무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신부와 카타리나수녀는 1832년에 첫 메달이 만들어지기 전 까지 많은 의견 차이들이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재능이 있었음에도 거의 2년 간 분별을 위한 힘든 노력을 했다. 1832년, 알라델 신부는 파리의 히야신트 드 랑 대주교를 방문하여, 카타리나 수녀의 영적지도 신부로서 그녀가 본 환시들과, 메달을 만들라는 복되신 동정녀의 요청을 전했다. 주의깊게 듣고 있던 대주교는 몇 가지 질문들을 한 후, 그 메달을 만들도록 허락해 주었다. 마리아의 무염시태에 깊은 신심을 가지고 있었던 대주교는 메달이 만들어지면 자신에게 몇 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1832년 6월 30일, 처음으로 2,000개의 기적의 메달이 만들어지자 아주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배부되었다.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도 그의 책상 위에 있는 십자 고상 밑에 이 메달을 놓아두었다. 미국에서 터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시녀회를 창설한 구속주회 길렛 신부는 1836년에 있은 그의 서품 기념 카드에 메달의 그림을 넣었다. 메달과 연관하여 일어난 치유들과 그 밖의 기적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1836년에 바세뜨사는 수백만 개의 메달을 판매하였다. 파리에 있는 11군데의 조판사들과 리옹 시의 네 군데의 조판사들도 메달에 대한 수요를 채우느라고 다른 업무를 중단해야 할 정도였다.

### 교회의 인준

1836년 2월 11일, 랑 대주교의 명에 의하여 교회의 정식 조사가 시작되었다. 결론은 메달이 초자연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일어난 기적들은 진정한 것이었다고 인준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에 의거하여, 교황청에서는 기적의 메달을 기념하는 축일을 제정했으며(1895), 카타리

나 수녀의 시복과 시성 조사가 촉진되었다.

### 부패되지 않은 카타리나 성녀의 유해

카타리나 수녀는 1876년 12월 31일에 세상을 떠났다. 1895년에 시복을 위한 청원이 로마에서 받아들여졌으며, 1933년 5월 28일에 시복되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지 57년



이 되던 그 해에 시복을 위한 절차로서 그녀의 유해를 조사해보니 놀랍게도 시신은 옷과 몸이 전혀 부패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1947년 7월 27일 성인 품에 오른 카타리나 성녀를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침묵의 성녀'라고 부르셨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카타리나 라부레 수녀가 성모님의 발현을 보았기 때문에 성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카타리나 성녀는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기적의 메달을 만들어 보급했으며, 그 메달들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러나 그녀를 성녀의 품에 이르게 만든 것은 성모님의 발현이 아니라 깊은 신앙 안에서 침묵중에 늘 가난한 이들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산 그녀의 삶이었다.

### 기적의 메달과 열매들

랑 대주교는 공개적으로 회개를 거부하고 있었던 도미니끄 드 리옴 드 프롤리악 드 푸르드프 남작이 임종하면서 회개한 것이 기적의 메달을 통해서였다고 인정하였다. 남작의 생전에 대주교는 여러 번 그를 만나려고 했으나 매번 거절 당하였다. 결국 남작이 병석에 누웠을 때 대주교는 기적의 메달을 지니고 그를 찾아갔을 때, 남작은 은총을 받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보았다. 그 다음날, 그는 대주교로부터 병자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한 후 대주교의 품에서 세상을 떠났다 (1837).

기적의 메달을 통한 또 하나의 놀라운 열매는 1842년 1월 20일에 있었던 알퐁스 라티스본의 개종이었다. 1월 15일에 그는 친구의 간청을 못 이겨 억지로 기적의 메달을 목에 걸고, "기억하소서, 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여. . ."라는 기도문을 외웠다. 그 날, 1월 20일에 그는 기적의 메달에 묘사된 눈부신 영광에 싸이신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의 발현을 보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다. 파트리찌 추기경은 이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1842년 1월 31일 알퐁스를 교회로 받아들였다. 그는 추기경으로부터 세례와 견진을 받고 첫 영성체를 했다. 그 후 알퐁스는 사제가 되었으며, 약 30년 간을 이스라엘 성지에서 그의 백성을 위한 선교사로 일하였다.

### 마더 데레사와 기적의 메달

쾰른 대주교 Meisner 추기경

"마더 데레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은 1980년 동 베를린에서였습니다. 성 헤드빅 대성당에서 제80회 독일 전국 가톨릭 대회에 같이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일을 오늘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미사와 성체거동 전에 저에게 '수녀들을 동독으로 보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독에서 동독으로 수녀를 파견하는 일은 불가능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더 데레사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나는 어떤 집이 필요할 때 먼저 그 집의 금액이 얼마나 고문지 않고 그 집에 창문이 열려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창문이 열려 있으면 그 창문을 향해 기적의 패(원죄없으신 임태 메달)를 던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집이 생기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체 거동시에 동 베를린 시청 쪽으로 기적의 메달(원죄없으신 성모성심 메달)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그러니 추기경님은 동독 정부에 수녀를 파견할 수 있도록 허락 신청서를 보내주세요.' 저는 믿어지지 않으면서도 그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후에 동독 정부로부터 수녀를 파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마더 데레사가 하느님과 성모님께 대한 얼마나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해주었고 저와 많은 이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또 제 자신이 하느님께 대한 깊은 신뢰심을 갖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M**



# 은혜로운 묵주기도를 바치는 방법

성 루도비꼬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하심을 묵상하는 지극히 성서적인 관상기도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드리는 묵주기도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생애와 참된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 편집자 주 –

## 분심을 물리침

묵주기도를 제대로 잘 바치는 기도보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더 영광스럽고 영혼에 더 많은 공로가 되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말로 꾸준한 간청을 하지만, 거의 불가피한 분심에 빠지게 되므로 계속 잘 바치며 수행해 나가기가 이보다 더 어려운 기도도 없습니다.

성모 소성무일도나 일곱 편의 시편을 읽거나 혹은 묵주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문들은 그 낱말과 표현이 다양해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며 우리의 상상력이 떠돌아 다니지 않도록 예방할 뿐 아니라 기도를 더 잘하도록 해줍니다. 그와 반대로 묵주기도는 똑같은 형태로 동일한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의 계속적인 반복 때문에 지루하고 졸려서 더 새롭고 덜 지루한 기도가 되게 하거나,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도문이나, 다윗의 시편을 바치는 것보다 묵주기도를 계속 바치는 데 더 열성어린 신심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잠깐이라도 안정되기 어려운 우리의 상상을 더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를 분심들게 하고 기도를 멀리 하도록 애쓰는 마귀의 악의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물리

치고 묵주기도를 한결같이 바칠 때 악마는 끝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는 쉽게 피곤해지며 부주의하게 됩니다. 악마는 이 어려움을 더 증가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도 하기 전에 악마는 우리가 따분함을 느끼게 하며 분심들거나 지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였을 때에 사방에서 우리를 억누르고 많은 어려움과 분심과 잡념이 들도록 성가시게 굴고 기도를 끝마쳤을 때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방금 바친 기도는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것이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은 네게는 소용없는 일이다. 너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네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정신차리지 않고 하는 기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반 시간 동안 묵상을 하거나 다른 영적 독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내일 덜 졸릴 적에 더 주의 깊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니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어라." 이런 종류의 속임수로 악마는 묵주기도를 포기해 버리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혀 기도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멀리해 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신심으로 바꾸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묵주기도회 형제자매들이여! 이런 악마에게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묵주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의 상상이 줄곧 여러분을 귀찮게 굴고 온갖 종류의 잡된 생각이 여러분의 정신을 채울지라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묵주기도는 가장 훌륭한 공로를 쌓으며, 쉬울 때보다도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공로가 됨을 명심하십시오. 기도는 영혼에 즐거운 맛을 못 느낄 때, 그리고 지루하고 침착하지 못할 때, 여러분의 뜻과 달리 상상이 어지럽힐 때,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평화 속에서 쉴 시간이 조금도 주어지지 않을 때 기도는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동안 온통 분심과 싸워야 할지라도 손에 무기(목주)를 들었을 때 더 잘 싸울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가 어렵고, 좋은 기분을 느낄 수가 없더라도 묵주기도를 중단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은 무서운 전쟁이지만 그것은 충실히 영혼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팔을 내리고 묵주기도를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패배를 인정하게 될 것이며 악마는 그대의 끗끗함을 쳐 이긴 승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그대로 가만 놔두었다가 심판 때 악마는 여러분의 불충실과 비겁함을 조롱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히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히합니다." (루가 16:10). 아무리 작은 기도를 바칠 때라도 가장 작은 분심까지도 충실히 싸우는 사람은 역시 더 큰 일에 충실히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만큼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시종이며 시녀인 여러분은 모두 묵주기도를 명심해서 드리고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묵주기도를 바칠 때 항상 예수님과 성모님의 현존 안에 있게 되는 우리 예수님, 마리아의 친구들인 여러분을 파리떼들이(나는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분심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비열하게 달려들지 않게 하십시오. 따라서 나는 여러분에게 분심을 없애는 방법을 제의합니다.

## 지혜로운 기도방법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청한 다음, 잠시 하느님 앞에 있으면서 다음의 (쉰 번째 장미) 방법으로 각 단을 바치십시오.

먼저 한 단을 바치기 전에 잠깐 멈추어 여유를 가지고 이 단에서 찬양하려는 신비를 생각하고 복되신 어머니의 전달을 통하여 이 신비에서 가장 빛나는 덕행의 하나나 혹은 여러분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덕행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꼭 청원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바치는 동안 범하게 되는 두 가지 잘못을 피하기 위해 아주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위험은 어떠한 은혜도 전혀 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묵주기도를 드리냐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주기도를 바칠 때는 언제나 몇 가지 은혜를 꼭 청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교의 큰 덕행 중에 하나님을 키우기 위해 혹은 여러분의 죄악 중의 하나님을 억누르기 위해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두 번째 큰 잘못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바칠 때 너무 빨리 끝내 버릴려고 아무런 뜻도 안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묵주기도를 할 때 무거운 짐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것이 우리 양심에 무거운 짐이 된다면 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거나 혹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다소간 보속으로 바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스러운 묵주기도를 어떻게 바치는지를 보면 실제로 민망스럽습니다. 그들은 너무도 빨리, 그리고 우물우물 중얼거리며 바치기 때문에 말마다가 충분히 전혀 발음되지도 않게 합니다. 최하위의 사람에게도 그런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인사말을 하지 않을 터인데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그러한 방식의 묵주기도로 공경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다니요! 그러니 우리의 거룩한 신앙 중에서도 가장 성스러운 기도들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묵주기도를 천 번 만 번 드린 뒤에도 그 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묵주기도회 형제여러분, 모든 기도의 속도를 조절하고,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칠 때 각 구절을 좀 짧게 쉬도록 하십시오. 처음에는 여러분이 급하게 기도를 바치는 나쁜 습관 때문에 이렇게 끊고 쉬는데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신을 가다듬고 바치는 묵주기도 한 단은 그저 빨리, 조금도 쉬지 않고 경솔하게 수천번 바치는 묵주기도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

(마리아 102호 - '묵주기도의 비밀 /kimsnhongs.com'에서 발췌)



# 예수님, 제 마음의 첫 자리는 당신께 속하나이다

슬라브코 바르바리치 신부 지음

신경남 스테파노 옮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1) 예수님, 저는 당신께서 여기에 현존해 계심을 믿습니다.

– 저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침묵중에 이 기도를 반복해서 바친다.)

2) 예수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사랑이십니다. 당신만이 참되고 영원한 사랑, 저희를 향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 예수님, 저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침묵중에 이 기도를…)

3) 예수님,(...) 당신의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 보는 사랑이시고,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순한 사랑이십니다. (...) 예수님, 제가 여기에 당신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예수님, 제 안에 당신과 함께 하고픈 열망을 불러 일으켜 주소서. (침묵중에 이 기도를…)

4) 예수님, (...) 오셔서 제 마음의 첫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 제 마음을 지금 있는 그대로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제 마음이 전혀 흠이 없고, 선하고, 자유롭고, 자비롭고, 기쁨에 넘치며, 사랑과 인내 그리고 관대함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 예수님, 오셔서 제 마음을 당신의 마음과 같이 만들어 주소서. (침묵중에 이 기도를…)

5) 나의 예수님, 제가 당신께 (...) 당신께 저의 과거와 현재를 맡겨 드립니다. 제가 느끼고 경험한 모든 것,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는 부정적인 흔적과 영향력 모두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 예수님, 저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침묵중에 이 기도를…)

6) 예수님, 감사합니다. (...) 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제 마음이 당신의 말씀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십시오. 제 마음이 당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서 묵상:마태 6: 24-25, 31-33)

(침묵 중에 머물며 생명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메아리치도록 한다.)

7)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제가 모든 의심과 불신, 불안과 걱정 모두를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느님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항상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소서. 저를 짓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를 해방시

쳐주시고, 저를 온전히 당신의 것이 되게 해 주소서! (...) 예수님, 저희의 어머니요 교사요 평화의 모후이신 마리아를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메주고리예에서 처음 발현하셨을 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하느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예수님, (...) 당신을 제 삶의 첫 자리에 모실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매 주 한 번씩 듣는 당신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저를 권유하셨습니다.

- 예수님, 당신께 저의 모든 존재, 저의 몸, 정신 그리고 영혼을 드립니다. (침묵중에 이 기도를...)

8) 예수님, 저는 이제 마리아와 함께 당신을 흡송합니다. (...) 어머니께서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미 마음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 주님, 저에게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침묵중에 이 기도를...)

9) 예수님, (...)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가족, 저의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공동체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침묵 중에 머물면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 대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침묵 중에 머물면서...)

(...) 지금 저는 마리아 그리고 당신을 믿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그들에게 신앙의 은총을 주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침묵 중에 머물면서....)

많은 이들이 그들 자신을 악에 넘겨주고, 악의 길을 따라가며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 자유를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침묵 중에 머물면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의심의 어두움과 죄의 노예 상태로 가리워진 마음들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하느님 자녀가 누리는 자유에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침묵 중에 머물면서...)

#### 10). 축복

(만일 사제가 성시간을 인도하고 있다면, 성체를 들어 올리고 축복의 기도를 바칠 수 있다. 만일 혼자서 기도하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축복과 치유를 청한다.)

예수님, 당신께 대한 저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불신, 공포 그리고 불안을 물리쳐 주십시오. 저의 양심과 저의 무의식을 치유시켜 주시어 제가 끝없이 당신의 현존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저의 사랑과 희망을 온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당신 교회의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아픈 사람들, 장애자들을 치유시켜 주소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당신의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저희에게서 사탄을 멀리 물리쳐주시고, 저희에게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와 저의 가족, 저의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을 평화로 축복하여 주소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당신께서는 세세에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M**

## 교회는 메주고리예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필립 파비치 신부/ 프란치스코회 OFM

"처음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제 관심을 끈 것은 1981년 6월 24일이라는 첫 발현 날짜였습니다. 그 날은 요한 세례자의 대축일이며 1957년 전 제가 사제서품을 받은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지에서 11년 있는 동안, 저는 4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하느님의 어린양이 저기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요한 세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사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요한 세례자가 저의 수호성인인 것이 행복합니다. 다음으로 성모님의 발현하시는 방법입니다. 성모님께서는 팔에 아기 예수님을 안으시고, 발현 목격증인들에게 그분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그들을 그분께로 초대하셨습니다. 저는 즉시 성모님께서 요한 세례자의 정신 속에 있는 평화와 믿음, 회개와 기도, 그리고 단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기 위해 일부러 그 날을 택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일 수만은 없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발현을 목격한 아이들이 그렇게 심오한 일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발현이 사실

이라고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요한 세례자가 어떻게 당신 자신에 관해 '바로 잡는 사람'이며, 당신을 '계시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모님께서는 교회를 바로잡아 다시 세우시고, 사람들이 당신 아드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그분을 섬기기를 열망하게 하려고 오십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갈릴래아 바다를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이곳 목자이시며 주임신부이십니다. 이곳은 호수 이편에서 저편까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던 본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아무도 여기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다음과 같은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메주고리예로 가고 있다."

1984년 10월, 저는 6000명의 사제들과 함께 피정을 하러 로마에 갔습니다. 그런데 골웨이에서 온 아일랜드계 프란치스코회 데스몬드 오밀리 신부님이 약 150명의 사제들과 함께 로마에서 메주고리예로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과 성모님의 일치를 이루는 메주고리예!

저는 메주고리예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저를 이미 이스라엘 성지로 부르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은 크로아티아 이민자이며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프란치스코회 소속 사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데스몬드 신부님에게 가능하



면, 발현 목격증인들을 통해 성모님께서 제가 메주고리예에 와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좀 여쭤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데스몬드 신부님은 이반을 통해 주신 성모님의 응답을 몇 개월 후에야 보내 주셨습니다. 영어는 영망이었지만, 그 답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가 뜻이 있으면,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를 도우러 오게 될 것이다." 저는 열심히 기도했고, 결국 성모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 주셔서 제가 메주고리예에서 봉사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곳 프란치스코 관구에 합류해서 이제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면 영원히 이곳에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주고리예는 홀륭하고 신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곳이며, 위치 자체도 '지리적으로 거룩한 땅'입니다. 메주고리예라는 지명은 '산과 산 사이'라는 뜻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발현을 통해 메주고리예에 새롭고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성당' 같은 의미 말입니다. 성야고보 성당은 예수님 몸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활동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함께, 이 성당은 발현 '산'과 십자가 '산'에서 생명을 받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에게 이 두 산은 성부와 성자의 업적을, 참다운 '거룩한' 땅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이곳에 오는 순례자들은 늘 십자가 산과 발현산에 갑니다. 발현산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그 여인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위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초대하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찾을 때, 그 여인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이 세상에 '당신들의' 아

드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환희와 신비를 통해 '성부의 업적'을 봅니다. 십자가 산의 정상에 있는 십자가는 메주고리예의 핵심적 상징입니다. 1993년 메주고리예 본당 신자들이 세운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업적을 보여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고, 사탄을 물리치시며 우리 모두를 당신에게로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를 당신 어머니에게 이끌어 주시어 우리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모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성자의 신부'로서 그분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는 고통의 신비이며 '성자의 업적'입니다. 그리고 성야고보 성당은 영광의 신비이며 '성령의 업적'입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배필이시기에 이 세 장소에 다 계십니다. 따라서 저에게 메주고리예는 진정으로 거룩하고 신비로운 땅이며, 자비와 은총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삼위일체이신 거룩하신 하느님과,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는 곳입니다. 저는 많은 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주며, 상담하고 강론하면서, "하느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는 성모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매일 만납니다. 성모님께서 저를 준비시키기 위해 먼저 이스라엘 성지로 부르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메시지인 성경에 뿌리를 두고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이 새로운 성지에서 순례자들과 함께 하는 것은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구약에서 순례자들은 "주님께 올라가도록" 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예외없이 모든 사람이 성모님의 발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주님께 올라가라."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이 기사는 11년 동안 있던 이스라엘 성지를 떠나 1987년 메주고리예로 온 프란치스코회 소속의 필립 파비치 신부의 체험담으로서 '우주의 여왕'에서 발췌하여 정리했습니다.)

# 묵주기도

이해인

산 내음 나는  
향나무 묵주 하나의  
지극한 보배로움이여

평일에도 묵주를 쥐고  
당신 앞에 오면  
난(蘭)처럼 향기로운 마음이여

흩어졌던 생각이 한자리에 모이고  
외출했던 사색도 돌아와 앉아  
나의 기도는 둥글게  
장미를 피움이여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를  
소박한 마음으로 외울 때마다  
예수를 낳은 마리아의 환희를  
예수를 잃은 마리아의 고뇌를  
그리고 부활의 예수를 얻은  
마리아의 승리를 함께함이여

성체등 깜박이는 성당에서  
촛불이 타오르는 방 안에서  
산책을 하는 길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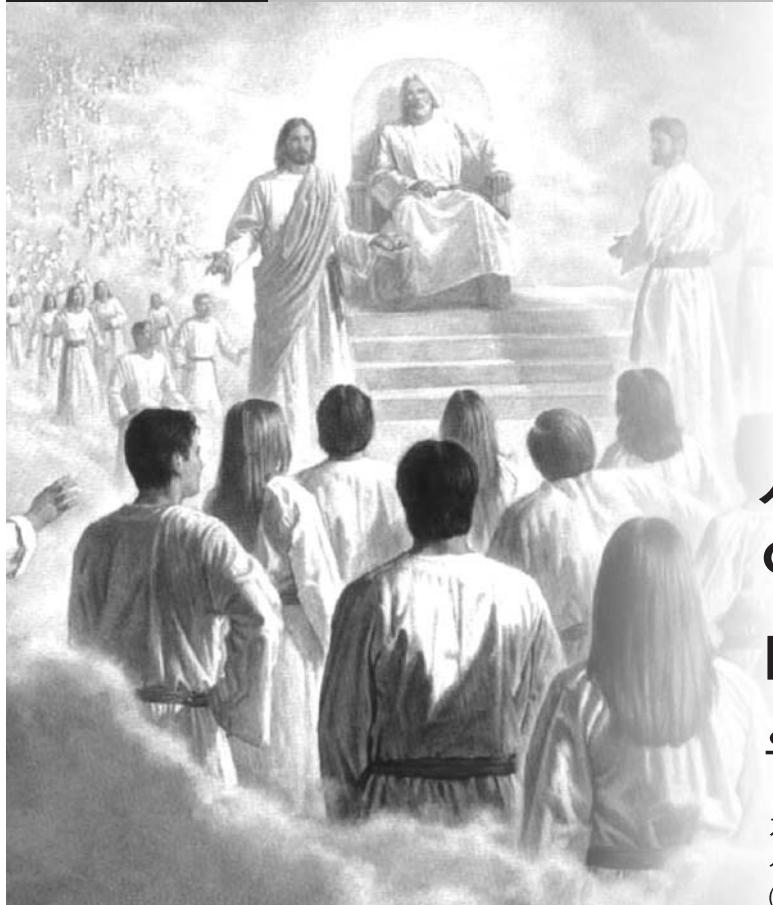
묵주를 든 손은  
언제나 겸허하고 따뜻한  
믿는 이의 손

예수와 마리아가 결합하듯  
나도 그들과 하나되는 은총이여  
가까운 이웃과 함께  
모르는 이웃과도 하나되고

산 이들과 함께  
죽은 이도 하나되는 신비여

베들레헴의 길을  
갈바리아의 길을  
엠마오의 길을 마리아와 함께  
앉아서도 걸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

오늘도 주머니에 넣고 만지작거리는  
단단한 묵주 하나의  
빛나는 보배로움이여



## 사람들은 언제까지 연옥에 머무르게 될까요?

### 우주의 여왕 (6)

저자 : 잔 코넬 (Jan Connell)

신경남 스테파노 옮김

(평화의 모후 선교회 지도신부, 카푸친 작은 형제회)

질문 : 사탄의 영향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습니까?

미리야나 : 자신의 평소의 행동을 통해서요. 자신이 스스로 어떤 사악한 행동을 하거나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을 발견할 때, 당신이 하는 행동에 사탄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질문 :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미리야나 : 하느님께 돌아와 도움을 청하십시오.

질문 :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리야나 : 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예수님처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 : 화를 내는 것도 악한 것입니까?

미리야나 : 네, 화는 큰 악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질문 : 무슨 뜻인지 좀더 설명해 주겠습니까?

미리야나 : 예를 들면, 저는 열다섯 살인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막내라서 자주 자신을 아기처럼 여기고 가끔 식탁에서 고기를 썰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저는 머리 속에서 '자기 먹을 고기 정도는 충분히 자를 수 있으면서'라는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

나 성모님께서는 제가 화가 나는 것을 느낄 때, 그것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린 동생에게 소리지르면 어머니가 저한테 소리지를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소리지를 것이고, 곧 온 가족이 서로 소리지르게 될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느끼는 순간에, 성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면, 저는 동생의 돼지고기 요리를 잘라 주면서 "더 잘라 줄까?" 하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듯 사탄은 우리가 하는 많은 일에 영향을 미치지만, 우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사탄은 특히 감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감정에 관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 : 성모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야나 : 네,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지기 때문에 가끔 우십니다. 하느님의 마음은 연민에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께 돌아와 그분을 믿으라고 부탁하십니다. 성모님께서는 결코 언성을 높이지 않으십니다. 결코 상처를 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특히 성모님의 발현과 관련해, 사람들이 성모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성모님의 현존을 부인하고 저희를 나무라고 많은 것을 비난합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이십니

## 연옥에서 낮은 단계에 있을수록,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다. 성모님께서 우시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면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간청하십니다.

질문 : 기도하라고요?

미리야나 : 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께서 사탄에 대해 경고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이나 직장, 또는 학교에서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도 소리지르게 되고, 다시 세 번째 사람도 소리지르게 되어, 사탄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를 내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질문 : 먼저 소리친 사람 뒤에 사탄이 있다는 말입니까?

미리야나 :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질문 : 화가 날 때, 기도하면 언제나 힘력이 있습니까?

미리야나 :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형 집행인들이, 예수님께서 수난당하시는 동안에 그분께 어떤 짓을 하던, 그들에게 화를 내는 죄를 범하시게 할 수는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질문 : 당신은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미리야나 : 성모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와 단식을 통해 사탄을 이겨낸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사탄은 하느님의 자녀를 해칠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단식할 때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의 마음은 너무 완고해서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성수도



사용하고 성물도 몸에 지닐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참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질문 :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미리야나 : 하루에 묵주기도를 세 번 바칩니다.

질문 : 그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미리야나 : 몇 시간씩 걸립니다.

질문 : 특별히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미리야나 : 네, 제 방에서 합니다.

질문 : 매일 미사에 참례합니까?

미리야나 : 아니오, 저는 종일 대학교에 있는데, 거기에는 미사가 없습니다. 설령 미사가 있다 해도 의무감 때문에 성당에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은 미사에 참례하는데, 저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신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제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면, 저는 미사에 참례할 길을 언제나 찾아냅니다.

질문 : 특별히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미리야나 : 네, 성모찬송기도입니다.

질문 :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미리야나 : 아니오, 저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쭤 보지 않습니다.

질문 :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을 본 적이 있습니까?

미리야나 : 연옥과 천국을 본 적은 있지만, 지옥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본 적이 없습니다.

질문 : 천국을 묘사할 수 있습니까?

미리야나 : 마치 영화를 보듯이 천국을 봤습니다. 처음 알 아본 것은 그곳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종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빛으로 자신들이 굉장히 행복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질문 : 천국이란 실제 장소입니까?

미리야나 : 네, 나무와 초원과 하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빛이 훨씬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천국은 제가 아는 지구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 성모님께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질문 : 당신이 본 천국 사람들도 몸이 있었습니까?

미리야나 : 네.

질문 : 나이는 어느 정도로 보였습니까?

미리야나 : 지금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서른 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 :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리야나 : 아름다운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할 것도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충만함에 있었습니다.

질문 :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미리야나 :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과 비슷한 모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질문 : 그곳 사람들이 당신을 보았습니까?

미리야나 : 제가 그 사람들을 보았을 뿐입니다. 환시였습니다.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질문: 미리야나, 연옥을 보았습니까?

미리야나 : 네, 연옥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는 동안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연옥에서 더 높은 단계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 : 연옥에는 얼마나 많은 단계가 있습니까?

미리야나 : 가장 낮은 단계는 지옥에 가장 가깝고, 고통도 가장 심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연옥은 천국에 가장 가깝고, 고통도 가장 적습니다. 어떤 단계에 있느냐는 영혼의 순결함에 달려 있습니다. 연옥에서 낮은 단계에 있을수록, 그 사람은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더 큰 고통을 당합니다. 높은 단계에 있을수록, 그 사람은 기도하기가 더 쉽고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 할수록 더 적게 고통 당합니다.

질문 :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연옥에 머뭅니까?

미리야나 :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성모님께서 연옥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영혼들이 연옥을 떠나 천국으로 갈 때, 대부분 성탄절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M

(위의 내용은 '우주의 여왕'에서 발췌했습니다. 책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메주고리예'소식지 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10월 2일 미리야나에게 주신 성모님 메시지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희를 다시 신앙에로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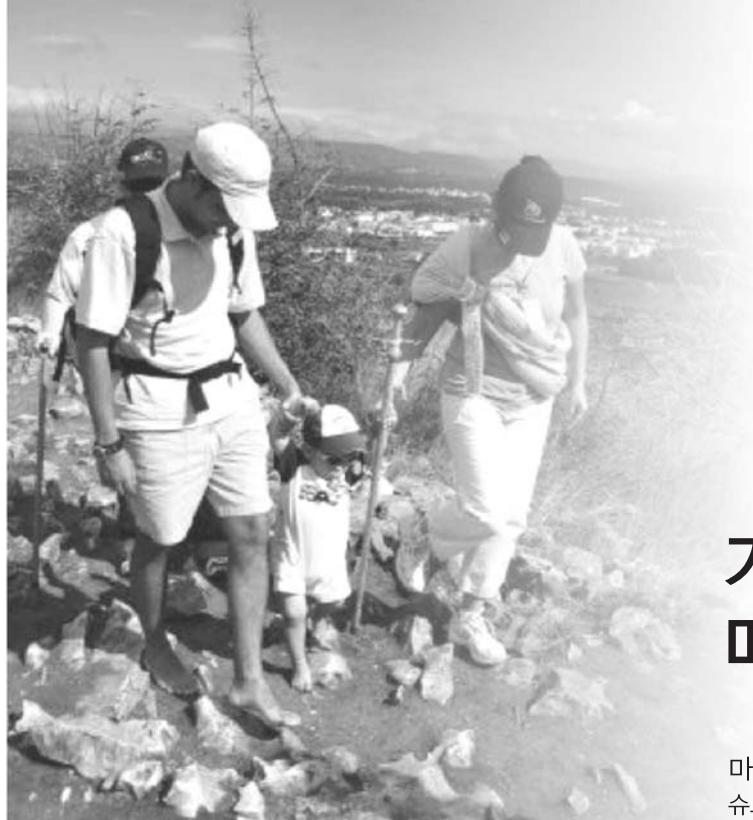
너희의 어머니로서 나는, 너희 마음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하다.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너희 마음에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자녀들아, 오직 신앙만이 인생의 시련 중에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면, 너희가 삶의 유일한 기쁨이며 행복인 신앙을 발견하도록

너희 이웃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내 주위로 불러 모은다.



## 가톨릭 전통과 메주고리예 메시지

마크 미라발레 교수

슈트벤틸 프란치스꼬회 대학교 신학과

(미국 슈트벤틸 프란치스꼬회 대학교의 마리아론과 신학을 가르치는 마크 미라발레 교수는 여덟 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 종신부제이다. 그는 로마에서 박사학위 중, 발현 초기 메주고리예의 진실을 조사하며 알게된 인연과 열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질문 : 교수님의 가정이 평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슈트벤틸 가톨릭대학교 같은 곳에서 일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도 메시지를 실천할 수 있나요?

마크 교수 :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60억 사람들을 위해 메시지를 성모님께서는 주시는 성모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알릴 때, 필요한 은총도 주십니다. 예를 들어, 임산부, 당뇨환자들이 수요일과 금요일 단식하지 못한다면 다른 형태의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절제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하는 것은 텔레비전을 절제하는 것과 남에 대한 비판 등입니다. 요조신부님은 성모님께서는 항상 적절한 영적인 처방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환자가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이 치유가 안된다고 의사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메주고리예의 메시지는 모든 사람을 위한 처방약입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받아 들인다면 누구나 실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족이 평범하나구요? 평범함의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요. 현대 세계의 위기는 평화와 가정의 위기입니다. 지금의 가정들은 텔레비전, 비디오, 게임 등이 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가정이 이토록 물질과 세속의 집착에 빠진 때는 그 어느 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정, 사람들의 변화를 원하셨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메시지를 실천하는 부모들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것을 가르쳐 줍니다. 1984년 저희가 처음 메주고리예에 갔을 때, 첫 아이가 다섯 살이었고, 둘째가 생후 2 개월 되었을 때였습니다. 아이들은 수요일과 금요일의 단식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즉 부모들의 삶속에서 보고 배운 단식은 아이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집 밖에서도 수요일과 금요일에 단식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생활화 되었습니다.

질문 : 아이들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과 문제는 없었는지요?

마크 교수 : 간단한 일은 아니지요, 작은 애들보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 아이 중의 한 명은 카톨릭 학교에 다니는데 사순절 금요일에도 단식을 하지 않는 학교예요. 그 아이는 학교 생활을 참 힘들어 했습

## 물질의 집착에 빠진 현대 세계의 큰 위기는 평화와 가정의 위기입니다.

니다. "실망스러워요. 가톨릭 학교인데도 사순절 금요일에 단식을 안해요. 열세 살짜리는 단식하지 않아도 된다면서요."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사춘기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 인내해야 하고 강해져야 합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후에 그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와 단식만이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준다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무너져 가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공의회 이후,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오래된 전통들이 사라졌다고 아쉬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메주고리예의 메시지는 신앙의 근본을 되살려주고 실천하도록 해주기에 모든 나라의 본당에 필요하다고 하고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메주고리예의 메시지는 본당과 가정의 쇄신 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에게만 무엇인가 더 많이 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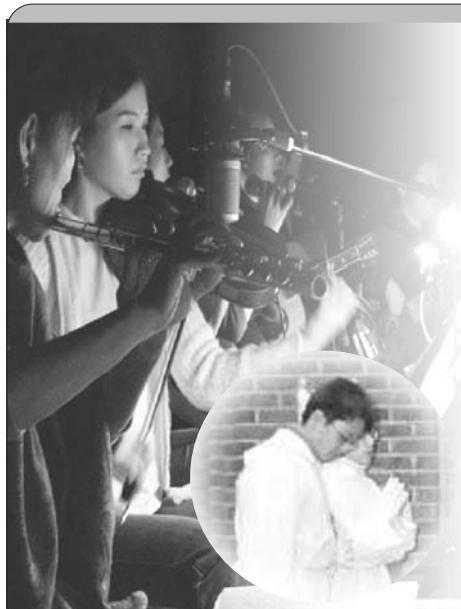
저는 박사 논문에서 메주고리예를 기본 주제들을 나누어 다뤘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신앙, 기도, 단식, 참회, 평화인데 성경과 교부들의 가르침들을 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고유한 부분을 발전시키는 것인데 예를 듣다면 이와 같은 교회일치에 관한 자료는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산더미처럼 찾을 수 있습니다. 메주고리예 메시지는 거룩함으로의 초대일 뿐 아니라 우리 카톨릭 신앙의 깊이 있는

전통으로의 회귀(回歸)입니다. 메주고리예서의 성모님의 말씀은 순교까지 감수했던 초대 신자들의 실천의 삶으로의 회귀입니다.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열렬한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메시지는 가톨릭인으로서의 가장 깊은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질문 :** 모든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왜 받아 들이지 못하는 주교들이 있을까요?

**마크 교수 :** 사적계시에 대한 거부반응과 두려움, 교회의 입장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예언이나 사적계시에 관한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저서를 읽고 있는데 메시지와 성령을 향한 개방, 예언과 기적에 대해 교회의 필요한 개입과 신중함에서 놀라운 관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티마의 예를 보면 1917년부터 발현이 인준된 1930년까지 지역 사제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것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파티마의 발현이 인준되기 10년 전, 성모님의 발현을 본 두 명의 중인이 죽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교회 역사에서 유일하게 순교자가 아니면서 사적계시의 삶을 충실히 살았던 그들을 교회가 발현을 인준하기 전에 복자품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적계시에 대한 교회 입장은 신중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에도 개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다음호에 계속)



## 메주고리예 음악과 함께하는 은총과 치유의 시간에 초대합니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후원회 월례 미사 및 성시간

일시: 매월 세번째 목요일 오후 7시 (목주기도 - 미사 - 성시간)

장소: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02-6374-2200

문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Tel : 02-2281-3236 / 010-7310-9678, 010-9922-5936

Fax : 02-2281-3245

e-mail : qpmmkr@gmail.com

서울 동작구 사당 1동 1031-29 한양빌딩 B1



# 여인 중에 복되시며…

캘커타의 마더 데레사 수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우리가 전기제품의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여러 전선들이 함께 뒤엉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낡은 것, 새 것, 값싼 것, 값비싼 것 등등 다양하지요. 그러나 여러 선들 안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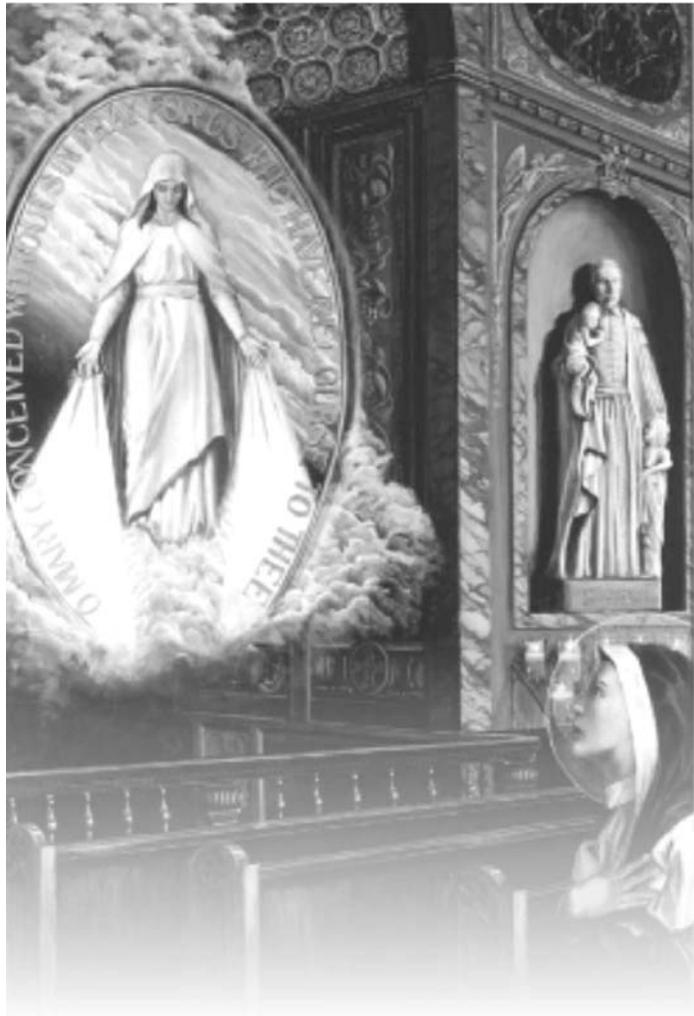
그대와 나는 전선이고 하느님은 전류이십니다. 우리는 그 전류가 우리를 통과해 세상의 빛으로 사용될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니면 빛으로 사용되기를 거절해서 깜깜한 어둠으로만 남을 수도 있겠지요.

성모 마리아는 가장 훌륭한 전선이셨습니다. 그 분은 하느님께서 자신을 가득 채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하는 순명의 행위로써 '은총이 가득한' 분이 되셨습니다. 은총이 가득하다는 뜻은 하느님으로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이 전류로 가득 채워진 바로 그 순간, 그는 은총의 힘에 의해 서둘러 엘리사벳의 집으로 갔습니다. 전선인 요한을 전류인 예수님께로 연결시키는 순간이기도 했음을 '당신의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아기가 내 태내에서 기쁘게 뛰놀았습니다.' (루가 1:44)라는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모님이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시길 청합시다.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세상 곳곳에 특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로 파견하시도록 말입니다.

모든 이들 마음 안에 있는 전선들을 사랑의 전류 자체이신 하느님과 연결시키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성모님은 우리를 도와 주실 것입니다. **M**





# 기적의 메달

제가 성당에 다니기전 회사를 다니다가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여기저기 자리를 알아 보았으나 나이 40세에 취직하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사람에게도 잘못을 너무 많이해서, 부산에 내려가 어머님과 단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우선 처자식에게 생활비를 보내 주어야 해서, 택시회사에 취직하여 밤낮없이 운전하면서 힘든 생활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아! 성당에 나하고 같이 나가자." 하시면 저는 "맨날 운전하고 집에 오면 힘이 들어 피곤한데 무슨 시간이 있어 성당에 가느냐!"고 어머니를 편안하면서 지냈습니다.

멀리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그리워 술로써 보고픔을 달래며 하루하루를 지내던 어느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열쇠고리로 쓰라면서 메달 같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주시는거라 할 수 없이 받아서 살펴보니 앞 쪽에는 웬 여자(성모님)가 있고 뒷 쪽에는십자가 밑에 M자, 그 밑에 하트문양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기적의 메달을 저에게 주시고 아들을 주님 곁으로, 성모님의 품으로 인도해 달라고 매일 기도를 하신겁니다. 나도 비록 열쇠고리에 매달린 메달이지만 기분 나쁘거나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기도 덕분인지 육개월만에 다시 인천으로 올라와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년만에 집 사람과 나란히 손잡고 교리반에 입교하게 되었습니다. 8개월만에 무사히 교리를 마치고 성모승천대축일(8월 15일)에 우리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가족을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어머님과 두 여동생 가족들, 구역장님, 반장님, 모두들 뜨겁게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열쇠고리에 달린 기적의 메달 성모님께, 아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늘 기도하신 덕택에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6년만에 다시 회사에 복직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레지오 단장이 되어 성모님의 사랑을 단원들과 함께 나누고 공부하고 활동하면서 늘 부족한 저희를 돌보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십니다. 지금도 제 열쇠고리에 함께 계시는 기적의 메달안에 계시는 성모님의 덕으로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성모님께 의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어머니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희의 기도를 아버지 하느님께 간구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모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청하십시오. 아멘

(cafe.naver.com에서 퍼온 글)



##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계속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 탈북자 이순옥씨의 신앙간증 -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나 근 50년을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96년 아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북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지하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사형선고까지 받고 사형집행날 극적으로 사형을 취소한다는 통지와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저는 김일성 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했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유일하게 6,000 여명이 수용된 그 곳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생산자휘와 모든 재정업무를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을 이곳저곳 마음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를 담당하고 있던 재정부장 교도관이 저를 불러놓고는 단단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매일 어떤 공장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 공장에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만 모여 있다. 그 미친 정신병자 놈들은 당과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자들이니 너는 정신을 바짝 차

리고 그 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미친 자들하고는 절대 눈길 한 번 마주치지 말아라. 만일 네가 그자들이 믿는 하늘을 믿게 되면 네 목숨은 여기서 끝장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무리 같지 않았습니다. 1,500도 이상 시뻘겋게 타오르는 용광로의 고열 노동 작업장이었는데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았을 때, 무슨 짐승의 무리 같기도 하고 외계인 같기도 하고 도무지 사람의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에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얼굴은 해골 같고 이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키가 다 줄어들어서 120 ~ 130센티미터 정도로 땅에 딱 붙은 난쟁이들만 움직였습니다. 나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잡혀 올 때는 정상인들이 잡혀 왔는데 거기 와서 하루 16~18 시간씩 그 고열 노동 속에서 먹지도 못하고 일을 하다 보니 그 사람들은 척추가 녹아 내려서 뒷잔등에 혹이 되어 있었고 몸이 다 휘어져서 앞가슴하고 배가 마주 붙



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 그렇게 육체가 망가져 기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프레스로 찍어도 한판에 그렇게 똑 같은 모습으로 찍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하는 작업장에는 교도관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교도관들은 말로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소가죽 채찍을 윙윙 휘두르고 다니면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의 몸에는 옷이 입혀져 있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 멀리서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모두 다 껴면 옷을 입고 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니 그 사람들은 맨 살가죽에다 앞에 시커먼 고무 앞치마 하나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불꽃이 양상하게 말라붙은 살가죽에 튀고 또 튀어 딱지가 앓고 그 자리에 쇳물이 또 떨어지고, 타버리고 해서 그 사람들의 피부는 한 곳도 성한 곳이 없었고 마치 짐승의 가죽과 같았습니다.

어느날 저는 그 곳에서 정말 말로 전하기 힘든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오후, 제가 공장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공장안이 죄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작업장 한 가운데 수 백 명의 그 죄수 아닌 죄수들을 모아놓고 담당 교도관 두 명이 눈에 핏발을 세우고 미친 듯이 고함을 치며 날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문 옆 한쪽에 비켜 서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수령님을 믿지 않고 하늘을 믿는 미친 정신병자 놈들이라고 소리 소리지르며 그 사람들을 차고 때리고 하면서 인간이 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들은 "너희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대열 앞에 나서라. 하늘을 믿지 않고 수령님을 믿겠다고 하면 자유세상으로 내보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하면서 그 사람들을 응박지르며 그들이 믿는 신을 거부하라고 채찍으로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이상한 것은 그 수 백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침묵으로 맞섰습니다. 저는 너무나 무서워서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누가 맞아죽지 않을 텐데 왜 계속 저렇게 입을 다물고 있나. 저라고 있으면 또 누구를 끌어내다가 밟아 죽일지

모르는데 빨리 한 사람이라도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급하게 생각하며 문 옆에 서서 무서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계속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때 독이 오른 교도관이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닥치는 대로 아무나 여덟 명을 끌어 내다가 땅바닥에 엎어놓고 구둣발로 내리밟고 짓이겼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고 허리며 팔 다리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고통 때문에 몸을 뒤틀면서, 짓밟힐 때마다 신음소리를 냈는데 그 신음소리가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때, 주님이 누군지, 하느님이 누군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뒤에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구둣발로 짓밟혀 뼈가 부러지고 머리통이 부서져 나가면서 신음소리처럼 애타게 불렀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의 천만 분의 일도 제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가 없습니다. 미쳐 날뛰던 교도관 두 명은 "수령님과 당을 믿는 우리가 사는가 아니면 하느님을 믿는 너희가 사는가 보자"면서 달려 가더니 용광로의 펄펄 끓는 쇳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쇳물을 피투성이가 된 그 신자들 위에 부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순식간에 살이 녹고 뼈가 타면서 숯덩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내 눈앞에서 사람이 숯덩이로 변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그 충격이 커던지, 그곳을 어떻게 튕어나왔는지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동안 도무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신적 충격으로 눈만 감으면 눈앞에 숯덩이가 된 사람이 어른거리서 도무지 눈을 감을 수 없고,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고,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며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마음 한 구

석에 실오라기만큼이라도 수령님과 당에 대해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인간은 주님을 꽉 잡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다시,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하늘에 기도했다는 그 하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간절하게 하늘을 찾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에 타 죽으면서까지도 저렇게 거부하지 않고, 저렇게 믿는 하늘이, 진짜로 그 하늘이 어디에 계시다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저렇게 무서운 짓을 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정말 별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부르짖으며 자나깨나 꿈속에서도 하늘을 찾고 또 찾고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주님께서 그 간절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한 달이 멀다 하고 공개처형이 있었는데 어느날 누구를 또 공개처형시키려는지 6천명이나 되는 수용소 사람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 했습니다. 공개처형 때는 언제나 하늘을 믿는 사람들을 맨 앞 줄에 앉힙니다. 그런데 하늘을 믿는 자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라는 짐일성의 특별지시와 규정이 있어서 하늘을 믿는 그 사람들을 앉힐 때에는 무릎사이에 목을 끼우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리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도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죽은 시체도 목을 꺾어 거적에 말아서 어두컴컴한 산골짜기 나무 밑에 파묻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신자들은 하늘을 조금도 보지 못하도록 목을 무릎사이에 끼우고 맨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 뒤쪽으로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를 또 공개처형하려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쇠몽둥이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하여 대답도 할 수가 없었고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간수들이 나를 끌어내다 앞에 세웠습니다. 내가 군중들 앞에 섰을 때, 수용소 소장이 나에게 "고마운 수령님과 당의 은덕으로 너는 이 시각에 석방이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목을 무릎에다 끼우고 맨 앞줄에 엎드려 있던 신자들이 내가 석방된다는 소리에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고개를 번쩍들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그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눈빛으로 간절히 말했습니다.'밖에 나가거든 자기들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 달라'고... 지금도 제 가슴에는 그분들의 그 간절한 눈빛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평생



을 빌고 또 빌은 그 하늘이, 한 번 들어가면 살아 나올 수 없는 그 악명높은 정치범 수용소에서 저를 살려 주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모자를 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 신자들의 눈빛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이 시대의 순교자라고 봅니다. 저의 증언으로 인해 북한 신자들의 인권문제가 150 여개 나라에 알려졌고 세계가 떠들었습니다. 유럽의 지식인 100 여명이 프랑스에 모여 북한 신자들의 인권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북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기사를 보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 Queen of Peace Missionary

Tel : (610) 366-9612. Fax : (610) 366-9614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발 행 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발행인/편집인 : 남 그레고리

지 도 신 부 : 박창득 몬시뇰(뉴욕대교구)

: 신경남 신부(카푸친 작은형제회)

자 문 위 원 단 : 김한기 신부, 요조 조브코 신부, 김기수 신부,

이종하 신부, 백남국 신부, 표신천 신부,

웨인 와이블, 남기옥(선교학 박사)

한 국 지 부 장 : 박연자

후 원 회 장 : 권수정

웹 관 리 자 : 제임스 윤

편 집 위 원 : 최성득, 최 레지나, 송시원, 남미자, 이규현, 한 데레사

인 쇄 : 미주기톨릭출판사, 영인문화 인쇄사, 동방인쇄

## 평화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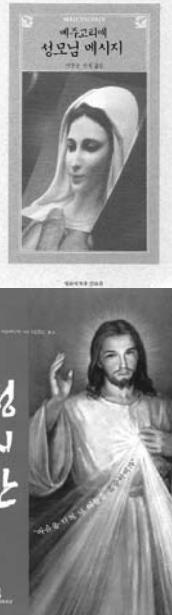
왜 성모님께서는 지난 27년동안 계속해서  
메주고리예에 발현하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고자 하시나?  
무엇을 부탁하시려는 것일까?

New

이 책에서 목격 중인 6명과 그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슬라브코 신부는 인터뷰를 통해 진실하고 소박한 언어로  
이 질문에 명백하게 대답해 준다.



New



### 메주고리예 치유의 음악과 성시간



- 은혜로운 성시간 DVD, 비디오, CD.
  - 성체를 통한 치유의 음악 CD
  - 메주고리예 관련 서적 보급
  - 신경남 신부님의 체험담 '메주고리예의 부르심'
- 판매 수익금은 성모님의 메시지를  
실천하고 전하는 곳에 쓰여집니다.

### 구입처

- 미국 : 평화의 모후 선교회 (610-366-9612)
- 한국 : 노마리노 (010-731-0-9678), 전국 성바오로 딸 및 성바오로 서점, 혜화동 가톨릭 서원 (02-745-8898)
- 카나다 : 이 테레사 (403-288-0469),

## 미주 가톨릭 출판 서점

세계성서공회와 한국 교회 공동 공용번역으로 새로 나온 성서 안내  
(색갈은 검정색, 곤색, 금색 오렌지색)

성경 1. (1단, 대, 일반) 세계성서공회가 발행한 그리스어 신약 성서 번역

성경 2. (1단, 대, 금장, 색인, 지폐) 전용박스포장 검정색

성경 3. (1단, 특대, 금장, 색인) 성인용: 큰 글씨체로서 어르신들께 좋습니다.

성경 4. (2단, 대, 금장, 색인, 지폐) 한 페이지에 두 단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두께가 얇습니다.

성경 5. (2단, 46판, 금장, 색인, 지폐) 한국 교회 공용 번역으로 매일 미사 책 크기)

성경 6. (2단, 일반 포켓용) 한국 교회 공용 번역본으로 일반 포켓용

성경 7. (2단, 포켓, 색인, 금장, 지폐)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 15% 할인도서

- 천국에서 나는 대화(아일린 조지)
- 가장 행복한 약속(박요안 신부 지음)
- 성령의 열매 9가지 이야기(보비 리드 지음)
- 하느님의 종 윤지중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
- 가족을 위한 엄마의 십자가의 길(수도회 역음)
- 하느님을 향하여(최기산 신부 지음)
- 그래도 뜻다한 말(김병업 신부 유고집)
- 십자가 성요한과 함께 하는 기도(웨인 짐 지음)
- 도토리 키 재기(변희선 신부 지음)
- 함께 걷는 하느님과 인간(이영현 신부 지음)
-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류해숙 신부 지음)
- 뜻을 알면 전례가 새롭습니다(정의철 신부 지음)
- 미사를 통한 치유(로버트 드그란디스 지음)
- 아기 예수 대례사의 정신(리아그르 신부 지음)
- 빛 안에서 현대인을 위한 묵상(마태오 맥게트릭 지음)
- 배꼽없는 사람은(권상혁 지음)
-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이상열 지음)
- 사람은 왜 사는가(이노우에 요지 지음)
- 상처입은 사람(위리엄 존슨 지음)
- 주님의 기도로 관상까지(부르고스 가르멜 수녀원 지음)
- 삶과 거룩함(토마스 머턴 지음)
- 우리 아기는 지금 어디에(낙태아를 위한 속죄기도)(야고보 지음)
- 생활교리(개정판 신자 생활 안내)
- 자동판매기가 되신 하느님(김영진 신부 지음)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1000여종의 서적과 성서, 성물, CD, Tape에 대한 목록을 e-mail 해드립니다.

판매 수익금은 중국과 북한 선교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973-672-6335 팩스 973-672-0509 E-mail : meejoobook@yahoo.com

# 평화의 모후 선교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2:5)

평화의 모후이신 메주고리예 성모님께서는 1981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발현하시면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평화의 모후 선교회의 사명은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회개, 신앙, 기도 그리고 보속의 삶을 살도록 초대하시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자 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 발행 및 무료보급
- 2. 신앙체험을 위한 메주고리예 순례 안내
- 3. 메주고리예 관련 서적 출판 및 보급
- 4. 메주고리예 성모님 메시지 전파를 위한 미디어물 제작
- 5. 평화의 모후 음악 선교단 육성 및 운영
- 6. 평화의 모후 기도회 설립 및 지원
- 7. 메주고리예 관련 인사 초청 강연회 및 세미나 개최
- 8. 기타 성모님의 특별한 지향들의 구현

본 선교회는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여와 정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단다.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의 도움을 요청하십니다.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선교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후원회원들을 위하여 저희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 1.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와 매달 메시지 묵상지 '평화의 모후'를 보내드립니다.
- 2. 매월 첫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메주고리예 순례 때에 모든 회원들과 회원 가정을 위한 특별 미사를 봉헌합니다.
- 3. 회원들이 보내주시는 모든 기도 지향을 매일 성모님의 발현을 보고 있는 목격 증인 비스카를 통해 성모님께 봉헌하며 축복을 청해드립니다.
- 4. 평화의 모후 기도회 때마다 모든 회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바쳐 드립니다.
- 5. 평화의 모후 선교회는 비영리 단체로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IRS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 Queen of Peace Missionary (평화의 모후 선교회)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m.org@gmail.com

## '메주고리예', '평화의 모후지' 신청서

영문 성명: \_\_\_\_\_ 영세명: \_\_\_\_\_

Adress: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전화(H): \_\_\_\_\_ 전화(O): \_\_\_\_\_ 날짜: 년 월 일

E-mail: \_\_\_\_\_ 소속 분당: \_\_\_\_\_

가족과 친지들의 주소를 보내주시면 성모님의 메시지와 소식지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십시일반 후원회원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장은미, 권효정, 김진일, 김나현, 김금성, 김마데라, 김명주, 김소영, 김세록, 김시순, 김아네스, 김안숙, 김영혜, 김옥희, 김이명, 김재국, 김주희, 김준홍, 김호영, 김학실, 김현희, 김혜란, 김혜정, 김효정, 남옥희, 노마리아, 문방자, 민헬레나, 민진아, 박금자, 박문수, 박선미, 박선영, 박병칠, 박혜선, 반영섭, 백안셀모, 서정렬, 손은자, 손혜레나, 성시영, 송데레사, 송정순, 신순덕, 안소영, 엄경숙, 엄봉화, 엄선미, 엄토마스, 윤경이, 윤경만, 윤정숙, 양은애, 이갑희, 이글라라, 이동우, 이마리아, 이문자, 이미림, 이은경, 이은희, 이진민, 이창호, 이순세, 이헬렌, 임효경, 임카타리나, 잔순윤숙, 정금희, 전연희, 전진숙, 전현숙, 진도미니카, 최동숙, 최정신, 표상순, 팽정숙, 황계자, 흥마르타, 흥영선, 익명, 메릴랜드 평화의 모후 기도회,  
Yoon H. L, Eileen Cho, Tak U. Lee, Insuk Mullins, Geldurada Kim, Joo D. Kim, K. Larcenaire, Myong J. Koo, Jeannie Kim, Hyun Yun, Lisa Rigoni, Mary Lee

- 회원님들이 보내주시는 정성과 기도로 묵상지 '평화의 모후'와 성모님의 소식지 '메주고리예'는 괌과 사이판을 포함한 미국, 한국, 카나다, 영국, 이태리, 독일,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페루, 맥시코, 브라질, 터키, 중국으로 성모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선교회의 사명에 함께 해주시는 회원님들께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성모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 분과 단체는 선교회로 연락주시면 어디든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 십시일반 후원금 이렇게 사용하였습니다.

지난호 후원금	\$10,052.86
지출 :	
메주고리예 소식지, 메시지 묵상지,	
후원회원봉투 인쇄	
통신비, 교통비,	
사무용품	\$13, 895.56
잔액	- \$ 3,842.70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계속 기도하십시오.  
다정하신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십시오.  
천사의 축사(祝詞)인 '성모송'으로 기도하십시오.  
더욱 큰 어려움에 처하면 로사리오 기도를 바치십시오.  
유혹 중에 있을 때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 승리합니다."

- 성 막시밀리아노 콜베-

# *Queen of Peace Missionaries*

P.O. Box 230, Albrightsville, PA 18210-0230  
Tel : 610-366-9612 Fax : 610-366-9614  
E-mail : qpmn.org@gmail.com

Return Address Service Requested

# 요조신부님과 함께 하는 피정 및 베주고리에 순례

2008년 11월 13일부터 23일까지 (10박 11일)

- ▶ 주 관 : 평화의 모후 선교회
- ▶ 피정장소 : 성 가정 고아원
- ▶ 경 비 : \$ 2,550 (뉴욕 공항출발 기준)
- ▶ 순례안내 : 남 그雷고리오 (평화의 모후 선교회 회장)
- ▶ 문 의 : 평화의 모후 선교회 / 610-366-9612  
e-mail:qpmn.org@gmail.com

## 요조 신부님과 함께 하는 4박 5일 피정 일정

- \* 아침, 점심, 저녁 묵성과 묵주기도 인도
- \* 카유의 안수와 한국어 미사봉헌
- \* 내적 카유를 위한 강론과 성체 혈시와 대 침묵



**순례** 성모님의 별현 산. 십자가 산과 그곳에 모셔진 예수님의 14처. 부활 청동상. 기도와 노동으로 치유되는 전 미약 중독자들의 재활원 체나클로 공동체의 체험담. 오아시스 수도원 방문과 체험담. 야고보 본당의 은혜로운 물주기도. 미사, 카유예절, 성 시간. 십자가 경배. 이룸다운 아드리아네의 성곽도시 드브로브니크 방문, 1700년 전 순교자 실비노 성인의 사신이 모셔진 성 브레이아슬리 성당에서 한국어 미사 봉헌. 호텔투숙

\* 상기 요금은 항공사의 가격변동과 유로화의 상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PRSR STD  
US POSTAGE PAID  
ALBRIGHTSVILLE, PA  
**PERMIT NO. 4**